



미투운동은 누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지지받는가?

미디어의 동원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주은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4학년*
백영민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부교수**

본 연구는 사회운동의 동원(mobilization) 과정 및 집단정체성 이론을 토대로 최근 급격하게 확산된 미투운동(#MeToo movement) 관련 미디어보도가 수용자의 미투운동 참여의사 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젠더(gender) 관련 사회운동 참여 및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미디어보도에의 노출이 '젠더문화의 심각성 인식', '미투운동을 통한 젠더불평등 개선기대감', '미투운동의 반발 우려'를 매개하여 미투운동 참여의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매개과정 없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미디어의 동원효과 패턴이 '성별'이라는 집단정체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성폭력 피해 폭로 '미투' 운동에 대한 국민 인식"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N=1063)의 응답을 2차분석하였으며, 미디어의 동원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의 동원효과는 남성(n=499)과 여성(n=501) 응답자 모두에게 나타났다. 둘째, 반면 성별에 따라 동원효과의 패턴은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응답자에게서는 미디어보도 노출이 한국 젠더문화의 심각성 인식과 미투운동을 통한 젠더불평등 개선기대감을 경유해 참여의사를 형성하는 간접효과가 나타난 반면, 여성응답자에게서는 미디어보도 노출이 별다른 매개 없이 곧바로 미투운동 참여의사로 이어지는 직접효과가 발생했다. 즉 미투운동 관련 미디어보도에의 노출이 참여의사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그 유형은 달랐지만 남녀 모두에게서 유의미하게 발견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함의와 한계점 역시 제시하였다.

핵심어: 미투운동, 집단정체성, 사회운동참여, 반발(backlash),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재원(교육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6S1A3A2925033)

* gracechoo0011@gmail.com, 주저자

** ymbaek@yonsei.ac.kr, 교신저자

1. 서문

지난 2016년 소셜미디어에서는 ‘#○○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hashtag, #) 운동과 함께 조직 내 성폭력 피해사실 공론화가 촉발됐다. 국내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성차별·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고백은 최근 미투운동(#Metoo movement)을 통해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미투운동은 사회 속 젠더불평등(gender inequality)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임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 다뤄져왔던 성폭력에 대한 논의를 사회문화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김보명, 2018; 이나영, 2018).

미투운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피해자들의 고발로 시작되었으나, 매스미디어 역시 그 확산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갠슨과 울프스펠드(Gamson & Wolfsfeld, 1993)는 사회운동(social movement)이 매스미디어 보도를 통해 운동의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며(mobilization), 사회운동의 존재를 정치적 의사결정자들에게 알리고(validation),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 성공한다(scope enlargement)고 주장하였다. 미투운동 역시 매스미디어의 미투운동 보도를 통해 참여자들의 사회적 연결망을 넘어 전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가령 미국의 미투운동은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가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Harvey Weinstein)의 성폭력을 보도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아 급속하게 확산되었다(Twohey, 2017.10.8). 한국의 미투운동 역시 2018년 1월 JTBC 뉴스룸에서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힘으로써(JTBC 뉴스룸, 2018.1.29)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미투운동에서 매스미디어가 미친 영향과 그 영향력이 발생한 과정을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운동’ 관점에서 미투운동을 개념화한 후(Dolata, 2018; Klein, 1984; Gamson, 1968), 미투운동 관련 매스미디어 보도가 수용자의 미투운동 참여의사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집합행동 프레임(collective action frame)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프레임’에 대한 해석과정을 통해 사회운동에 대한 참여의사를 형성한다(Snow, Benford, McCammon, Hewitt, & Fitzgerald, 2014). 집합행동 프레임이란 사회운동을 촉발하고 정당화시키는 행동지향적인 신념들의 집합을 의미하며(Snow & Benford, 1992), 갠슨(Gamson, 1992)은 집합행동 프레임의 중요 요소로 ‘부당한 상황에 대한 인식(injustice)’, ‘집합행동을 통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agency)’, ‘집단정체성(identity, ‘우리’와 ‘그들’에 대한 규정)’ 등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요소들을 활용해 미투운동에서의 동원효과, 구체적으로는 미투운동에 대한 미디어 보

도의 동원효과 패턴에 대한 양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집합행동 프레임 이론의 관점에서 사회운동의 동원효과를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Snow et al., 2014)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도는 미투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 이해를 돕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미투운동을 접한 사람들은 위드유운동(#WithYou movement)과 같은 형태로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우리 사회의 젠더문화(gender culture)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기대감과 함께 미투운동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 첫째, 미투운동을 통한 피해자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누적된 젠더불평등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다. 실제로 미투운동과 유사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한 후 젠더불평등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졌지만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았으며, 더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기도 했다(고시면, 2018; 김희선, 2018.3.12; 장명선·김선옥, 2016). 언론의 선정주의적 보도행태도 비관적 전망을 강화시키는 이유 중 하나다. 페미니즘 운동을 다룬 기존의 미디어 보도를 분석한 질적 연구들에 의하면, 많은 경우 미디어는 페미니즘을 '일탈된 여성의 생각이나 행동'으로 파악하는 등 여성운동에 대한 부정적(negative) 보도를 해왔다(Barker-Plummer, 2010; Jaworska & Krishnamurthy, 2012; Lind & Salo, 2002). 비록 한국에서 미투운동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운동의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성폭력 사건을 자극적이고 단순한 양성갈등 프레임에 입각해 보도함으로써 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에 대한 성찰을 어렵게 만드는 언론보도도 적지 않다(이미나, 2018.2.1; 최이숙, 2018;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8.3.18).

둘째, '폭로'를 중심으로 한 미투운동이 '명예훼손'(고시면, 2018; Ackland, 2018.4.3) 혹은 '마녀사냥'(Mumford, 2018.2.12)의 양상을 띠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다. 일방적 '폭로'는 내용의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특정인에 대한 평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미투운동이 자칫 고발대상의 무고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며(고시면, 2018; Stephens, 2017.12.20), 미투운동을 접한 일부 남성들의 경우 자신이 무고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언행을 최소화하는 전략인 '펜스 룰'을 통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여성을 아예 배제시킨다(김지혜, 2018.3.8). 이러한 미투운동에 대한 반발은 미투운동에 대한 우려로도 이어지며, 오히려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미투운동에 대한 여러 기대 및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투운동에 대한 연구는 규범적이고 이론적인 논의에 머무르는 것이 보통이며(예를 들어, 김보명, 2018; 이나영, 2018), 거시적 차원에서 남녀의 인식차이를 살펴보는 수준(예를 들어, 양정애·김영주, 2018)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매스미디어 보도 노출을 통해 발생한 미투운동에 대한 기
대감과 우려가 수용자의 미투운동 참여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나아가 응답자 성별에
따라 미투운동 지지 및 참여의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미투운동 관련 언론보도를 접한 여성 및 남성 응답자들의 젠더
문화(성역할에 대한 규범 및 문화)의 심각성 인식, 미투운동을 통한 젠더불평등 개선기대감, 미
투운동에 대한 우려수준이 미투운동 참여의사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성별·연
령별 대표성을 확보한 설문조사 데이터에 대한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Kline, 2015) 분석을 통해 응답자 성별에 따라 미디어의 동
원효과 발생 경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미투운동을
비롯한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정보처리방식 차이를 이해하고 미디어보도가 사회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사회운동으로서의 미투운동과 미투운동에 대한 참여

“Me Too”라는 이름의 사회운동은 흑인 여성 운동가 타라나 버크(Tarana Burke)가 2006년
최초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중적 운동으로서의 미투운동은 2017년 미국인 배우 알
리사 밀라노(Alyssa Milano)가 트위터에서 이 용어에 해시태그를 붙이면서 본격화되었다
(Guerra, 2017.10.17).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공간에서의 성폭력·성차별 피해사실 폭로
와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등 일련의 사회운동 과정을 ‘미투운동(#MeToo movement)’이라고
정의하였다. ‘나 역시(me too)’라는 이름에서도 잘 드러나듯, 미투운동은 여성들의 폭로를 지지
하고 함께하겠다는 소셜미디어 상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사회운동이다(Dolata, 2018, p. 44).

그렇다면 소셜미디어 공간의 개인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미투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에 지지
를 표하고 참여하였을까? 사회운동을 집합행동 프레임 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학적 연구들
에 의하면, 개인은 집합행동 프레임에 따라 사회운동에 대한 참여의사를 형성하고 참여한다
(Snow et al., 2014). 갠슨(Gamson, 1992)은 집합행동 프레임의 중요 요소들로 ‘부당함에
대한 인식’, ‘집합행동을 통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 ‘집단정체성’ 등을 제시한다. 이
는 미투운동에 대한 참여의사 형성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첫째, 기존 사회의 규범에 강력한 불만(grievance)을 갖고 있으며, 시스템의 정당성에 대

한 거부감이 클수록 사회운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rejection of legitimacy; Klein, 1984; Gamson, 1968; Gurin, Miller, & Gurin, 1980). 가령 클라인(Klein, 1984)에 의하면, 직장 내 젠더불평등에 노출된 여성은 고정된 성역할에 대한 거부감을 형성하고, 이는 페미니즘에 대한 개방적 태도로 이어진다. 또한 개인의 불만이 모여 '집단의 공유된 불만족(shared discontent)'으로 이어질 때 사회운동은 더욱 강세를 띈다. 이러한 '기존 규범의 정당성 거부'는 미투운동 참여자에게도 확인할 수 있다. 미투운동 참여자들은 여성이 일상적인 성차별과 성폭력에 노출되어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으며(이나영, 2018), 이것이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와 불기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김보명, 2018).

둘째, 사회운동에 대한 참여로 인해 기존 사회의 규범과 문화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을수록 사회운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참여하였을 경우 보다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다(Gamson, 1968; Gurin et al., 1980; Klein, 1984). 특히 페미니즘 운동에 여성이 참여하는 과정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여성이 반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데에는 '참여를 통한 개선기대감(anticipation of initiation)'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Summers-Effler, 2002). 즉 참여가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단 긍정적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희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운동에 참여하게 만든다. 이러한 개선기대감은 미투운동 참여자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와 참여는 미투운동의 '성차별적 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이며, 해당 운동이 성폭력 문제와 젠더불평등을 해결하는 데에 일조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젠더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강할수록, 그리고 미투운동을 통해 젠더불평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클수록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도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운동 참여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가설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1: 한국사회의 젠더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할수록 미투운동 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2: 미투운동이 한국사회의 젠더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강할수록 미투운동 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2) 미투운동에 대한 반발(backlash)과 반발 관련 우려(concern)

기존 시스템의 정당성을 거부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하려는 진보적 사회운동은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기존 시스템을 지지하고 유지하려는 세력의 반발(backlash)을 유발하기 쉽다(Faludi, 2006; Rudman, Moss-Racusin, Glick, & Phelan, 2012). 특히 미투운동이 다루고 있는 젠더불평등 이슈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남성들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부 남성들의 심리적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고시면, 2018; Rudman et al., 2012). 또한 여성 내부에서도 젠더규범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미투운동과 같은 여성운동에 대한 온도차가 존재한다(Rudman & Glick, 2012; Rudman et al., 2012).

차별을 개선하려는 사회운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미투운동을 둘러싼 심리적 반발을 이해할 수 있다. 인종차별 철폐 사회운동에 대한 주류인종(백인)의 반응을 다룬 연구들에 따르면, 주류인종은 해당 사회운동의 대의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Katz & Hass, 1988; Kinder & Senders, 1990), 사회운동의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령 주류인종인 백인들의 경우, 인종차별을 철폐하려는 적극적 사회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소수인종에 대한 특혜로 주류인종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주장을 하거나(예를 들어, Sniderman & Piazza, 1995), 소수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반발(Kinder & Sears, 1981)해 왔다.

미투운동 이전의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반응을 다룬 선행연구 결과도 비슷하다. 역사 속에서 여성인권 신장을 위한 사회운동은 항상 자신의 경제권이나 지위 등 기존에 존재하는 '권력'을 빼앗긴다고 느끼는 이들의 반발을 마주해왔다(Faludi, 2006; Mansbridge & Shames, 2008). 또한 남성은 물론 일부 여성 역시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목표에는 동의하더라도 페미니즘 운동의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Aronson, 2003).

이러한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반발은 '반발에 대한 우려(concern of backlash)'를 유발해, 해당 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기도 한다(Rudman & Glick, 2012). 실제로 페미니즘을 '극단적'이며 '남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이 적지 않음은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해 밝혀졌다(Buschman & Lenart, 1996; Moi, 2006; Zucker, 2004). 이러한 양상은 미투운동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Kay, 2017.12.1; Stephens, 2017.12.20). 즉 미투운동이 확산됨으로써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결국 미투운동이 '가해자-피해자' 구도가 아닌 맹목적인 남녀갈등 구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이영민·이동우, 2018.3.12; 현혜란·김예나·이효석, 2018.3.25). 또한 미투운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거나,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역공격을 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김희선, 2018.3.12).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반발 우려는 미투운동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반발을 우려하는 사람일수록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3’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3: 미투운동에 대한 반발을 우려하는 사람일수록 미투운동 참여의사가 낮게 나타날 것이다.

3) 미투운동 확산과 전파: 미디어의 동원효과 패턴과 성별의 조절효과

미투운동을 보도한 몇몇 매스미디어의 경우 사실 전달이라는 명목 하에 피해사실 묘사에 집중하는 등 미투운동을 ‘선정주의(sensationalism)’ 관점에서 다룬다는 비판을 받는다(이미나, 2018.2.1;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8.3.18). 하지만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미투운동 확산에 매스미디어가 수행한 역할은 부정할 수 없다. 2016년에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났던 ‘#문단_내_성폭력’과 같은 성폭력 고발 운동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 비해, 2018년의 JTBC <뉴스룸>의 보도 이후 미투운동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컸다(이희은, 2018).

사회운동을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파악하는 선행연구들에서 잘 드러나듯(Gamson, 1995; Roscigno & Danaher, 2001; Schmidt, 2008; Snow, Rochford, Worden, & Benford, 1986), 특정 이슈에 대한 미디어보도가 수용자의 관심과 부합해 공명(resonance)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이슈는 사회적 이슈로 자리매김하며, 더 나아가 수용자의 참여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갬슨(Gamson, 1995)은 미디어보도가 스토리텔링의 형식을 취하며 보도의 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 미디어보도 프레임은 대중들의 부당함(injustice) 프레임과 공명한다는 점을 실증한 바 있다. 즉 수용자가 경험한 사회적 부당함(experienced injustice) 인식은 미디어보도에 노출된 후 더욱 공고해진다. 또한 미디어보도가 사회운동을 ‘효과적이고 필요하며, 개인의 일상과 연관된 행동’으로 묘사하는 경우, 미디어보도는 대중들의 사회문제 해결 주체(agency)로서의 효능감을 촉진시키며, 이는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미투폭로 관련 미디어보도의 경우,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성폭력 피해실태를 가감없이 보여주었다. 이전의 성폭력 고발 운동들과 비교할 때, 미투폭로 관련 미디어보도는 대중들의 ‘부당함’이라는 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고, 따라서 미디어보도를 접한 수용자가 우리 사회 젠더문화의 심각성을 강하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투폭로 보도는 미투운동이 성폭력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며, 미투운동을 통해 사회의 젠더불평등이 개선될 수 있음

을 보여줌으로써 연이은 미투폭로를 촉발시켰다. 이런 점에서 수용자의 미디어보도 노출은 우리 사회 젠더문화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도 이어졌을 수 있다. 하지만 미투폭로 관련 미디어 보도가 늘어나고 페미니즘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면서, 이에 대한 '기존 젠더문화 옹호세력의 반발'과 '반발에 대한 우려' 역시 함께 증가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투폭로 관련 미디어보도에의 노출은 대중들의 미투운동 인식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러한 미디어보도의 동원효과는 발생경로에 따라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두 가지로 구분된다(Gil de Zúñiga, Molyneux, & Zheng, 2014; Xenos & Moy, 2007). 간접적 동원효과가 발생할 경우, 사회운동에 대한 미디어보도 노출은 수용자의 의식적인 이해나 평가 등의 정보처리(information processing) 과정을 매개해 해당 사회운동에의 참여로 이어진다. 한편 직접적 동원효과가 발생할 경우, 사회운동에 대한 미디어보도 노출은 정보처리 과정의 매개 없이 곧바로 수용자의 참여로 이어진다.

정보처리 과정의 차이는 집단정체성 측면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은 집단정체성을 기준으로 외집단과 내집단에 대해 다른 방식의 정보처리를 한다(예를 들어, Conover, 1988; Petrow & Transue, 2018; Thau, 2017; Xiao, Coppin, & van Bavel, 2016). 선행연구들이 가장 빈번하게 주목하는 집단정체성은 '인종정체성(racial identity)'이다. 유권자의 인종정체성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처리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들(Petrow & Transue, 2018; Thau, 2017)에 의하면, 유권자의 정치성향이나 이슈에 대한 평가 등 인지적 요소들이 후보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유권자와 후보자의 인종이 다를 때 더 강하게 발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집단보다 외집단을 평가할 때에 보다 비판적인 정보처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정체성에 기반한 정보처리 경향은 정치 이외의 이슈들에서도 발견되었다(Xiao et al., 2016). 젠더이슈와 관련해서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지지도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 정보처리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지를 연구한 코노버(Conover, 1988)의 연구가 눈길을 끈다. 코노버에 따르면 젠더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남성의 경우 개인의 성향이나 진보주의 혹은 공동체주의적 성향과 같은 정치적 가치(political values) 등의 인지적 요소들에 의해 형성되는 반면, 여성은 젠더정책이 목표로 하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정치적 공감(political sympathy)'이라는 정서적 요소에 의해 형성됨을 발견하였다. 즉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인지와 정서가 젠더정책 지지도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졌다.

사회운동에서도 집단정체성에 따라 다른 인지적 처리 양상을 보인다. გამ슨(Gamson,

1992)에 의하면, “우리(we)’와 ‘그들(they)’의 차이점을 인식”하도록 돕는 ‘정체성(identity)’은 사회운동을 촉발시키는 집합행동 프레임의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운동에서는 집합행동을 하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며 행동의 대상이 되는 ‘그들’을 우리로부터 구분하는 인지적 처리과정이 발생한다. 물론 미투운동이 남녀 간 차이를 부각하며 시작된 운동은 아니지만,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미투운동에 대한 정보처리 방식은 성별이라는 집단정체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성차별 및 성폭력 경험을 공유하는 미투운동의 주체는 주로 ‘여성’이다. 이에 미디어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은 여성들에게는 내집단으로, 남성들에게는 외집단으로 인식된다. 즉 여성은 미투운동에 대한 미디어보도에 더 쉽게 공감하며 피해자의 주장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미투운동의 주체를 외집단으로 인식하는 남성은 보도내용에 대한 의식적인 정보처리과정을 거쳐 미투운동에 대한 의사를 형성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정체성 이론에 기반해 사회운동에서의 매스미디어효과, 즉 성별에 따른 미디어의 동원효과에 주목하며,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도출하였다.

연구문제1: ‘미투폭로 관련 미디어보도 노출(이하 미디어보도 노출)’이 미투운동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미디어보도 노출은 ‘젠더문화의 심각성 인식’, ‘미투운동을 통한 젠더불평등 개선기대감’, ‘미투운동 반발 우려’를 매개하여 미투운동 참여의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이러한 매개 과정 없이 미투운동 참여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미디어보도 노출이 미투운동 참여의사에 미치는 효과 패턴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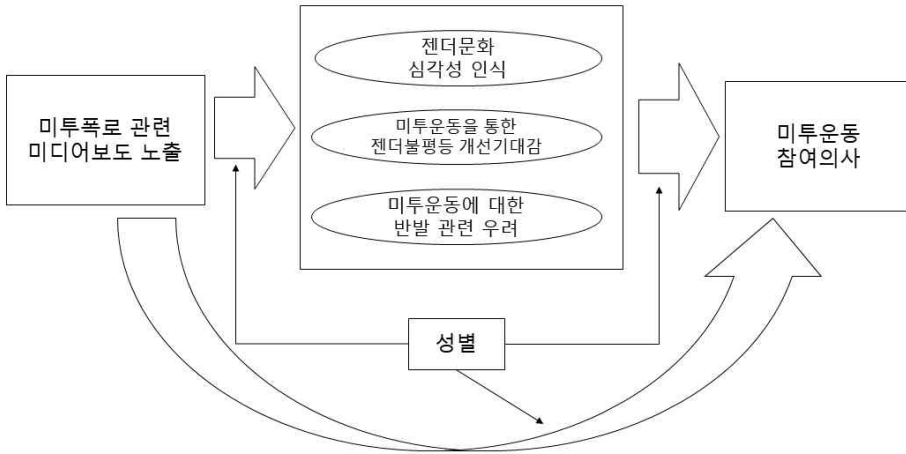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3. 연구방법

1) 표본

본 연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 2018년 2년 19일부터 2018년 2월 22일, 총 4일간에 걸쳐 실시한 “성폭력 피해 폭로 ‘미투’ 운동에 대한 국민 인식”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1,063명의 응답을 2차분석(secondary analysis)하였다. 해당 연구표본은 2015년도 통계청 인구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연령·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할당표집을 통해 구성되었다(응답률 15.2%). 설문응답자 표본은 여성이 49.2%, 남성이 50.8%였으며, 20·30·40·50대 응답자의 비율은 각각 24.8%, 25%, 24.8%, 25.3%로 엇비슷하였다. 또한 73.2%의 응답자가 대학졸업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응답자는 10.5%,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16.3%였으며, 월평균 가계소득은 평균 400~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양정애·김영주, 2018). 설문자료는 한국언론재단 홈페이지¹⁾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다.

2) 변수측정

(1) 종속변수: 미투운동 참여의사

1) <https://www.kpf.or.kr/site/kpf/ex/board/View.do?cbIdx=292&bcIdx=20349>

본 연구에서 미투운동 참여의사는 미투운동과 위드유운동에 대한 설문응답자의 '지지의사'와 '참여의사'를 통해 측정하였는데, 위드유운동이 미투운동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밝히는 파생적 사회운동이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미투운동으로 간주하였다.

구체적으로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의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투'와 '위드유' 운동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4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지지하지 않음'; 4 = '강력히 지지함')로 측정하였다($M = 3.28$, $SD = .59$).²⁾ 참여의사는 "귀하는 '미투'나 '위드유' 운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4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없다'; 4 = '매우 많다')로 측정하였다($M = 2.93$, $SD = .66$). 응답자의 참여의사와 지지의사 변수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하나의 잠재변수를 가정할 수 있었다($r = .52$, $p < .001$).

(2) 독립변수: 미투폭로 관련 미디어보도 노출

응답자의 미디어보도 노출량은 미투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했을 2018년 2월 당시 등장한 주요 성폭력 보도사례 6가지에 대한 노출여부의 합계로 측정하였다. 합계 방식으로 도출된 독립변수는 '미디어보도 노출'과 개념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지만, 여섯 가지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었다는 점에서 변수들을 개별적 사건이 아닌 일련의 '미투폭로'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³⁾ 각각의 사례들과 보도를 접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각각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검사장의 성폭력(95%)', '극단 미인 김수희 대표 등이 폭로한 이윤택 예술감독의 성폭력(84%)', '미국 여배우들이 폭로한 제작자 등의 성폭력(80%)', '최영미 시인이 폭로한 문단에서의 성폭력(75%)', '아시아나 승무원들이 폭로한 회장의 성폭력(66%)', '전직 여기자가 폭로한 선배 언론인의 성폭력(50%)'이었다($M = 4.50$, $SD = 1.48$).

(3) 매개변수: 젠더문화 심각성 인식, 미투운동을 통한 젠더불평등 개선기대감, 미투운동 반발에 대한 우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보도 노출과 미투운동 참여의사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들로 젠더문화에 대한 심각성 인식, 미투운동을 통한 젠더불평등 개선기대감, 미투운동으로 인한 반발 우려를 살펴보았다. 우선 젠더문화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폭력(성폭행, 성추

2) 이 문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응답자('관심없음', $n = 63$)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미디어보도 노출 측정치의 내재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언급하였다.

행, 성희롱 등)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 생각하십니까?”($M = 3.42$, $SD = .62$)와 “우리 사회에서 ‘상하관계’ 내지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M = 3.52$, $SD = .58$)의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을 4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 ‘매우 심각하다’)로 측정하였다. 두 문항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하나의 잠재변수를 가정할 수 있었다($r = .67$, $p < .001$).

젠더불평등 개선기대감은 미투운동의 실효성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를 통해 측정하였다. 해당 변수는 응답자에게 “미투/위드유 운동의 실효성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미투/위드유 운동이 다음 각 항목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지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설명을 제시한 후,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징계로 이어짐”($M = 3.00$, $SD = .70$), “성폭력 피해자들이 당했던 부당한 인사와 같은 또 다른 피해를 바로잡음”($M = 3.02$, $SD = .73$),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M = 3.33$, $SD = .70$),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높임”($M = 3.19$, $SD = .75$), “앞으로 성폭력 발생 빈도를 낮춤(예방 효과)”($M = 2.95$, $SD = .78$)과 같은 5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을 4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기여 안함’; 4 = ‘매우 많이 기여함’)로 측정하였다. 다섯 문항에 대한 응답은 높은 신뢰도를 보여(Cronbach’s $\alpha = .87$), 하나의 잠재변수를 가정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미투운동에 대한 반발 우려는 “미투 운동은 남성과 여성의 분열과 반목을 조장한다”($M = 2.00$, $SD = .78$), “미투 운동으로 인해 남성 전체 혹은 특정 집단 전체(예: 검사 전체, 문인 전체 등)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M = 2.25$, $SD = .83$), “미투 운동이 없었다면 본인의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사람들이 ‘미투 운동 때문에 이를 공개함으로써 2차·3차 피해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M = 2.52$, $SD = .84$), “미투 운동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진 후에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격할 여지를 준다”($M = 2.60$, $SD = .79$)의 4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을 4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 ‘매우 심각하다’)로 측정하였다. 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높은 신뢰도(Cronbach’s $\alpha = .74$)를 보여 하나의 잠재변수를 가정할 수 있었다.

(4) 조절변수: 응답자 성별

앞부분에서 언급하였듯, 본 연구는 성폭력 사례들에 대한 미디어보도 노출이 젠더문화 심각성인식, 젠더불평등 개선기대감, 미투운동 반발 우려를 매개하여 미투운동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표본은 할당표집에 근거하기 때문에 남

성($n = 499$)과 여성($n = 501$) 응답자 수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각 50%).

(5) 통제변수

앞서 소개한 변수들 외에 응답자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거주지역, 정치적 이념성향 등을 통제변수로서 연구모형에 투입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20대('2'), 30대('3'), 40대('4'), 50대 이상('5')으로 측정되었으며, 할당표집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각 연령집단은 약 25%로 비슷하였다($M = 3.51$, $SD = 1.12$).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16%), 대학 졸업(73%), 대학원 졸업(11%)으로 나타났다($M = 1.94$, $SD = .51$). 또한 소득수준은 월 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1)부터 '800만원 이상('8)까지를 100만원 단위로 측정하였다($M = 3.95$, $SD = 2.04$).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서울 및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M = .46$, $SD = .50$). 끝으로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은 응답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5점 리커트 척도(1 = '보수'; 5 = '진보')로 측정하였다($M = 3.15$, $SD = .79$).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성폭력 사례들에 대한 미디어보도노출이 젠더문화 심각성인식, 젠더불평등 개선기대감, 미투운동 반발 우려를 매개로 어떻게 미투운동에 대한 참여의사를 형성하며(즉 '매개효과'), 이러한 미디어보도노출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즉 '조절효과'). 이를 위해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multigroup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Kline, 2015). 이를 위해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 원인변수, 매개변수, 결과변수의 관계가 응답자 성별에 따라 어떻게 조절되는지 살펴보았다. 다집단 구조방정식 분석은 2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여성과 남성 응답자 집단에서 모형 동등성 테스트(model invariance test)를 실시하였다. 즉 모형의 모수 동등성(equality) 제한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기저모형(unconstrained model)을 시작으로 '인자적재치', '관측변수 오차항', '잠재변수 공분산', '통제변수의 인과경로(causal paths)', '연구모형의 인과경로'의 차례로 동등성 가정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어떤 부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모수 동등성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에서 상정하고 있는 인과경로가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어떤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추정은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R의 lavaan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차이 분석은 비모수통계기법인 부트스트래핑, 보다 구체적으

로 볼렌과 스타인(Bollen & Stine, 1992)의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이용하였다.

4. 연구결과

1) 집단별 기술통계분석 및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기 전에, 모형에 투입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1>과 같다. 우선 원인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에서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접한 성폭력 사례들의 수는 남성응답자와 여성응답자가 유사했으나($t(988) = -.58, p = ns$), 여성일수록 한국사회의 젠더문화 실태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였으며($t(988) = 9.77, p < .001, d = .62$), 미투운동을 통해 젠더불평등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고($t(988) = 1.99, p < .05, d = .13$), 미투운동에 대해서도 긍정적 참여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988) = 4.46, p < .001, d = .28$). 반면 남성응답자의 미투운동 반발 우려 수준은 여성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t(998) = -5.02, p < .001, d = -.32$).

표1. 응답자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미디어보도노출	심각성인식	개선기대감	반발 우려	미투운동 참여의사
미디어보도노출		.29***	.18***	-.02	.28***
심각성인식	.08		.40***	-.23***	.62***
개선기대감	.10*	.22***		-.16**	.61***
반발 우려	-.06	-.19***	-.11*		-.24***
미투운동 참여의사	.29***	.51***	.47***	-.29***	
평균(표준편차)					
여성응답자	4.50 (1.42)	3.63 (.49)	3.13 (.60)	2.25 (.60)	3.18 (.52)
남성응답자	4.51 (1.53)	3.31 (.56)	3.06 (.59)	2.43 (.61)	3.03 (.56)
성별평균차이검증($t(998)$)	-.58	9.77***	1.99*	-5.02***	4.46***
효과크기 (Cohen's d)	-.04	.62	.13	-.32	.28

주: 대각선 기준 좌측하단은 여성응답자($n=499$)에게서 나타난 상관계수이며, 대각선 기준 우측상단은 남성응답자($n=501$)에게서 나타난 상관계수임. 보고된 상관계수는 표본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거주지역(도시 = 1, 비도시 = 0), 정치적 이념 상황을 통제한 후 계산되었으며, R의 lavaan 패키지를 기반으로 계산되었음.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원인변수와 매개변수 간 상관관계는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미디어보도노출과 젠더문화 심각성 인식의 관계는 여성응답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r = .08, p = ns$), 남성응답자에게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r = .29, p < .001$). 또한 미디어보도노출과 미투운동을 통한 젠더 불평등 개선기대감의 관계 역시 여성응답자보다($r = .10, p < .05$) 남성응답자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r = .18, p < .001$). 한편 미디어보도노출과 미투운동에 대한 반발 우려의 관계는 남성이든($r = -.02, p = ns$) 여성이든($r = -.06, p = ns$)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매개변수와 결과변수 간 상관관계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했지만 상관관계의 방향성은 유사했다. 젠더문화 심각성 인식과 미투운동 참여의사 간에는 남성응답자($r = .62, p < .001$)와 여성응답자($r = .51, p < .001$) 모두에게서 정적(positive)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미투운동을 통한 젠더불평등 개선기대감과 미투운동 참여의사 사이에도 여성응답자($r = .47, p < .001$)와 남성응답자($r = .61, p < .001$) 모두에게서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미투운동의 반발 우려와 미투운동 참여의사 사이의 관계는 남성응답자($r = -.24, p < .001$)와 여성응답자($r = -.29, p < .001$) 모두에게서 부적(negative)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원인변수인 미디어보도노출과 결과변수인 미투운동 참여의사는 남녀 응답자 모두에게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크게 다르지 않았다($r = .28 \sim .29, p < .001$).

2)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추정결과

유의미한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시한 상관계수들로는 미디어보도노출이 미투운동 참여의사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매개변수를 경유하는 간접효과를 추정할 수 없으며, 성별에 따른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차이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연구문제1>과 <연구문제2>에 답하기 위해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방법’ 부분에서 언급하였듯, 먼저 모형 동등성 테스트를 통해 연구모형 중 어떤 모수에 서 남녀 응답자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모형에서 추정하는 모든 모수들을 자유롭게 추정한 (1) ‘기저모형(unconstrained model)’을 기준으로 차례대로 (2) 인자적재치(factor loadings) 동등성 가정 추가(Λ_X, Λ_Y), (3) 관측변수의 오차항(residual errors of observed variables) 동등성 가정 추가($\Theta_\delta, \Theta_\epsilon$), (4) 잠재변수의 공분산(covariances of latent variables) 동등성 가정 추가(Φ, Ψ), (5) 통제변수의 인과관계 경로(Γ, B) 동등성 가정 추가, (6) 끝으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 경로 동등성 가정을 추가

한 완전히 동등한 모형을 차례대로 추정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총 여섯 개의 모형들의 카이제곱 모형적합도 지수의 변화치와 자유도 변화치는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여성 응답자와 남성 응답자의 모형동등성 테스트 결과

모형 비교	$\Delta\chi^2$	Δdf	<i>p-value</i>	$\Delta\chi^2/\Delta df$
모형1 대(對) 모형2	14.08	9	.120	1.56
모형2 대(對) 모형3	32.66	14	.003	2.33
모형3 대(對) 모형4	10.80	7	.148	1.54
모형4 대(對) 모형5	36.64	25	.063	1.47
모형5 대(對) 모형6	19.59	7	.007	2.80

일림. '모형1'의 카이제곱은 $\chi^2(220)=367.24, p < .0010$ 이며, '모형6'의 카이제곱은 $\chi^2(282)=480.99, p < .001$ 다.

<표2>의 결과에서 잘 드러나듯, 대부분의 남녀 응답자의 차이는 본 연구모형에서 상정하고 있는 인과관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모형5 대(對) 모형6' 결과 참조). 물론 '모형2 대(對) 모형3'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이는 관측변수의 오차분산 차이로 인한 것으로 이론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이유는 없다. 즉 응답자들은 성별에 따라 미디어 보도노출, 젠더문화 심각성 인식, 젠더불평등 개선기대감, 미투운동에 대한 반발 우려, 미투운동 참여의사의 관계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우선 구조방정식모형의 모형적합도를 살펴보았다. 모형적합도 지수 평가는 클라인(Kline, 2015, pp. 268-280)을 따랐다. 모형적합도 지수들은 $\chi^2(220, N=1,063) = 369.72 (p < .001)$, CFI = .97, TLI = .95, RMSEA = .04 (90% CI, [.03, .04]). SRMR = .03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데이터에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형적합도 카이제곱값은 여성응답자($\chi^2(110, N=499) = 177.64$)와 남성응답자($\chi^2(110, N=501) = 192.09$)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모형추정치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연구모형에서 상정한 경로를 추정한 결과는 <표3>과 같다. 흥미롭게도 원인변수인 미디어 보도 노출량이 매개변수들에 미치는 효과의 패턴은 성별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여성응답자의 경우, 미디어보도 노출량은 젠더문화 심각성 인식($\beta = .08, p = ns$), 미투운동을 통한 젠더불평등 개선기대감($\beta = .09, p = ns$), 미투운동 반발 우려($\beta = -.07, p = ns$)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응답자는 미디어보도 노출량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 젠더문화의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beta = .30, p < .001$), 미투운동으로 젠더불평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9,$

$p < .001$). 그러나 여성응답자와 마찬가지로 남성응답자의 미디어보다 노출량은 미투운동 반발 우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 = -.04, p = ns$).

매개변수들이 결과변수에 미치는 효과 역시 성별에 따라 다소 상이한 패턴을 보였다. 우선 '연구가설1'과 '연구가설2'에서 예측했듯, 젠더문화 심각성 인식수준(여성, $\beta = .37, p < .001$; 남성, $\beta = .39, p < .001$)과 젠더불평등 개선기대감 수준(여성, $\beta = .35, p < .001$; 남성, $\beta = .41, p < .001$)이 미투운동 참여의사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성별에 따른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연구가설1'과 '연구가설2'는 응답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미투운동 반발 우려가 미투운동 참여의사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경우, 남성응답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beta = -.08, p = ns$), 여성응답자에게서는 뚜렷하게 확인되었다($\beta = -.16, p < .01$). 즉 '연구가설3'은 여성응답자에게서만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원인변수인 미디어보다 노출량이 결과변수인 미투운동 참여의사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성별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응답자는 미투운동에 대한 미디어보다 노출량이 많을수록 미투운동에 대해 참여의사를 형성한 반면($\beta = .21, p < .001$), 남성응답자에게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미디어보다 노출의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beta = .09, p = ns$).

표3.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경로추정결과

	심각성인식		개선기대감		반발 우려		미투운동 참여의사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미디어보다노출	.08	.30***	.09	.19***	-.07	-.04	.21***	.09
심각성인식							.37***	.39***
개선기대감							.35***	.41***
반발 우려							-.16**	-.08

주: 보고된 회귀계수는 표본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거주지역(도시 = 1), 정치적 이념성향을 통제한 후, 계산된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로 R의 lavaan 패키지를 기반으로 계산되었음. $\chi^2(220, N=1,063) = 369.72$ (여성 응답자, $\chi^2(110, N=499) = 177.64$, 남성 응답자, $\chi^2(110, N=501) = 192.09$). CFI = .97. TLI = .95. RMSEA = .04 (90% CI, [.03, .04]). SRMR = .03.

* $p < .05$, ** $p < .01$, *** $p < .001$.

〈표3〉의 결과를 그래프로 요약하면 〈그림2〉와 같다. 〈그림2〉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듯, 여성의 미투운동에 대한 미디어보다 노출은 다른 매개변수들을 경유하지 않고 미투운동 참여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직접효과'), 남성의 미디어보다 노출은 젠더문화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젠더불평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미투운동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간접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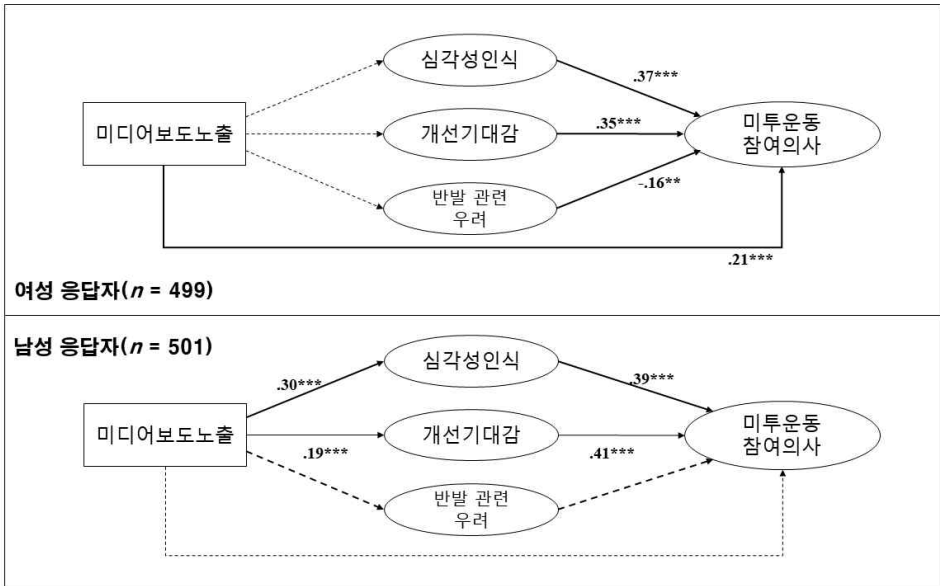


그림 2. 미디어보도노출, 미투운동 태도, 미투운동 참여의사의 관계

주: 점선화살표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의미함.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미디어보도 노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이용해 테스트하였다. 아래 제시된 <표4>의 '총효과'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미디어보도노출의 총효과는 남성표본 ($b_{\text{총효과}} = .194$, 95% CI, [.094, .302])보다 여성표본에게서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b_{\text{총효과}} = .279$, 95% CI, [.165, .385]),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b_{\text{총효과 차이}} = .085$, 95% CI, [-.064, .221]).

총효과가 남녀에게서 비슷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는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매개변수를 경유한 간접효과의 경우, 여성응답자에게서는 세 가지 간접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남성에게서는 젠더문화 심각성 인식 경우 간접효과($b_{\text{심각성인식 간접효과}} = .117$, 95% CI, [.068, .179])와 젠더불평등 개선기대감 경우 간접효과($b_{\text{개선기대감 간접효과}} = .076$, 95% CI, [.036, .12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집단차이를 살펴보면, 젠더문화 심각성 인식을 경유한 간접효과가 여성에 비해 남성응답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크게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b_{\text{심각성인식 간접효과 차이}} = -.087$, 95% CI, [-.161, -.025]). 한편 반발 관련 우려 경우 간접효과는 남성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

미디어보도 노출이 미투운동 참여의사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여성응답자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_{\text{직접효과}} = .204, 95\% \text{ CI}, [.109, .306]$). 집단차이의 경우, 부트스트래핑 결과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의 직접효과는 여성이 더 크지 않았지만, 기준을 다소 약하게 설정하여 90% 신뢰구간을 평가기준으로 채택할 경우 성별에 따른 직접효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경험하는 직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b_{\text{직접효과 차이}} = .123, 90\% \text{ CI} [.006, .235]$).

표4. 성별에 따른 미디어보도 노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비교

	여성응답자 (n=499)	남성응답자 (n=501)	집단차이
직접효과	.204* (.109,.306)	.085 (-.004,.17)	.123+ (-.019,.251)
간접효과			
심각성인식 경유 간접효과	.029 (-.007,.071)	.117* (.068,.179)	-.087* (-.161,-.025)
개선기대감 경유 간접효과	.031 (-.005,.075)	.076* (.036,.125)	-.046 (-.106,.014)
반발 우려 경유 간접효과	.009 (-.007,.035)	.002 (-.006,.018)	.007 (-.015,.034)
총효과	.279* (.165,.385)	.194* (.094,.302)	.085 (-.064,.221)

주: 제시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는 총 1,000번의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얻은 결과임. SEM 맥락에 특화되어 개발된 볼렌파스테인(Bollen & Stine, 1992)의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R의 lavaan 패키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음.

+ $p < .10$ (90%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 $p < .05$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추정 결과, 미디어를 통해 미투운동을 접한 남성은 성폭력 및 젠더문화 실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젠더불평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미투운동에 참여의사를 형성한 반면, 여성의 미디어보도예의 노출은 다른 변인의 매개 없이 미투운동 참여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비록 미투운동 관련 미디어보도 노출이 미투운동 반발 관련 우려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모두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지만, 반발 우려가 미투운동 참여의사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서만 나타났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투운동에 대한 미디어 수용자의 참여의사 형성 과정을 ‘집합행동 프레임’, ‘사회

운동에 대한 반발', 그리고 '집단정체성'을 기반으로 설명하였다. 우선 미투운동을 사회운동으로 규정한 후, 미투운동 참여자의 젠더문화 심각성 인식, 미투운동을 통한 젠더불평등 개선기대감, 그리고 미투운동 반발 관련 우려리는 세 변수들이 참여자의 미투운동 참여의사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았다(연구가설1 ~ 연구가설3).

다음으로 미투운동의 확산에 매스미디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미투운동 관련 미디어보도가 수용자의 미투운동 참여의사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미디어의 동원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지 혹은 매개변수들을 경유해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연구문제1). 또한 이러한 미디어 동원효과와 패턴이 미투운동에서의 집단정체성인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연구문제2).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질적 함의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미투운동 관련 미디어보도에의 노출은 미투운동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러한 미디어 동원효과와 패턴은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미디어보도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미투운동에 대해 긍정적 의사를 형성하는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남성의 경우 미디어보도 노출을 통해 한국 젠더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미투운동을 통해 젠더불평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형성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미투운동에 대한 참여의사를 형성하고 있었다. 즉 미투운동 관련 뉴스를 접한 여성은 미투운동에 대한 의식적 정보 처리과정 없이(unconscious information-processing) 미투운동 참여의사를 형성한 반면, 남성은 의식적 정보처리과정(conscious information-processing)을 거쳐 미투운동 참여의사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성별에 따라 정보처리방식이 달라졌을까? 해답은 '나 역시(me too)'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해당 표현이 보여주듯, 미투운동이 여성에게 즉각적인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상당수의 여성들이 피해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며 스스로를 잠재적 피해자로 상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김보명, 2018; 이나영, 2018). 즉 피해자들이 겪은 성폭력에 대한 뉴스를 접한 여성들은 별도의 의식적 정보처리 과정 없이도 즉각적으로 미투운동에의 참여가 가능하다. 반면 남성은 여성과 달리 간접적 동원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미투운동을 접한 남성은 집단정체성 측면에서 외집단인 여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의식적 정보처리 과정 없이는 미투운동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형성할 동기가 부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Rudman & Glick, 2012). 즉 성별이라는 집단정체성에 의해 미투운동 보도에 대한 정보처리 방식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데이터에 대한 '2차분석'을 시도했다는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와 폭로내용에 대한 공감수준'과 같은 대안적 매개변수의 효과를 살펴볼지 못한 한계에

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할 때, 본 연구에서 발견한 성별에 따른 미디어 동원효과와 패턴변화는 집단정체성 이론이 페미니즘 관련 이슈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관련 주장으로는 Rudman & Glick, 2012; Rudman et al., 2012).

둘째, 성별에 따른 패턴 차이에도 불구하고 총효과 측면에서 미디어의 동원효과는 남성과 여성에게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두 집단 모두 미디어의 미투운동 보도를 접한 후 미투운동에 참여의사를 형성했으며, 미디어를 통해 성차별·성폭력 사례들을 접한 남성들의 미투운동에 대한 반응은 여성에 비해 간접적으로 발생했을 뿐 분명하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에게서 나타난 미디어의 간접적 동원효과는 '젠더문화 심각성 인식'을 경유한 경로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 이는 남성들이 미투운동 관련 보도를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젠더문화의 문제점과 개선필요성을 비교적 강하게 인식한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투운동 이후 상당수의 남성들은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지 몰랐다' 또는 '미투운동 이후 내가 했던 행동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권민수, 2018.3.9; Zeilinger, 2018.1.29). 일부 남성들의 반발과 부정적 반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이세아, 2018.4.8), 본 연구결과는 미투운동에 대한 미디어보도 노출이 남성들로 하여금 현재의 젠더문화를 재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미투운동의 확산이 점진적으로나마 젠더불평등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미투운동 이후의 남녀 간 입장 차이를 부각시키며 젠더이슈에서의 갈등만을 강조하는 언론의 선정주의적 보도들은 지적할만하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은 물론 남성 역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미투운동의 창시자인 타라나 버크 역시 미투 운동이 성별과 무관하게 성폭력 피해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여성 피해자가 많기에 여성이 주도하고 있지만, 결코 남성을 배제시키는 '우리 대 그들(us and them)'의 대결구도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Walden, 2018.3.7).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성별 차이에 근거해 대답만을 강조하는 언론의 젠더이슈 보도가 과연 한국사회 젠더불평등을 해결하는 데에 일조할지 아니면 남녀 간 갈등만을 심화시킬지 돌아볼 것을 암시하고 있다.

셋째, 미투운동에 대한 반발 관련 우려가 미투운동 참여의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권력위계를 근거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 해석은 '반발회피모형'(backlash avoidance model; Rudman et al., 2012)에 근거한 심리학적 해석이다. 반발회피모형은 페미니즘 운동 등 기존 사회규범에서 벗어난 행동(atypical behavior)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반대하는 여성들의 심리를 설명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여성은 전통적으로 확립된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

에게 부여되는 부정적 낙인이나 사회적 주목 등의 반발을 두려워하며,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결과는 기존 젠더문화에 도전하는 미투운동에 대한 여성의 반발회피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두 번째 해석은 메타지각(meta-perception), 즉 '상상된 타자의 지각에 대한 지각'에 근거한 해석이다. 2차분석이라는 한계로 인해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여성의 미투운동 반발 우려가 미투운동 참여의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소위 '제3자 지각'(the 3rd person perception: Davison, 1983) 혹은 '추정효과의 효과'(the influence of presumed influence: Gunther & Storey, 2003)에 의해 발생했을 수 있다. 즉 여성의 미투운동 반발 우려는 '여성 자신의 우려'(women's concern)라기보다 '남성이 우려할 수 있다는 여성의 우려'(women's concern over presumed men's concern)이며, 이러한 여성의 메타지각은 미투운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미투운동과 함께 확산된 '펜스룰'에 대한 여성의 우려는 '남성이 바라보는 미투운동에 대한 여성의 메타지각'에 기반하고 있었다. 물론 2차 분석에 기반한 본 연구는 '반발회피모형'이나 '메타지각'에 기반한 설명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실증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며, 이런 가능성은 향후 실증연구를 통해 세심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성별에 따라 미디어의 동원효과 패턴과 미투운동에 대한 반발 또는 반발회피 정도가 달라진다는 흥미로운 발견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분석한 횡단(cross-sectional) 설문자료에 근거하였다. 2차분석의 특성상,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관측변수는 데이터를 수집한 '한국언론재단' 연구자들(양정애·김영주, 2018)이 상정했던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본 연구의 개념적 정의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령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보도 노출'을 '여섯 가지 미투폭로 보도사례에 대한 노출여부의 합산값'으로 측정했는데, 이 합산값이 응답자의 '미투폭로에 대한 미디어 보도에 대한 수용자의 노출'을 대표하는 값으로 볼 수 있는가는 불명확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관점에서 미디어 보도 노출을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로 가정하였지만, 미투운동 관련 수용자의 태도나 인식 등으로 형성된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미디어 노출'이 사람들의 인식, 태도, 행동 등의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지만(관련 이론적 리뷰연구로는 Webster, 2014), 현재의 횡단적 설문자료를 통해서도 실증적 해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향후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반복측정 패널 설문조사(panel survey)와 미디어 내용분석, 그리고 미디어 수용자에 대한 질적 연구방법론 등 다각적인 연구방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미디어 동원효과 패턴 차이에 대해 '정보처리 방식의 차이' 이외에도 대

안적 설명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령 현실의 젠더 불평등을 여러 차례 경험한 여성의 경우 이미 '젠더문화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을 수 있으며, 이에 미디어보도 노출의 간접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태도와 함께 '인지(cognition)' 관련 측정치를 확보한 후, 미디어를 통한 젠더불평등 학습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남성의 응답에서 사회요망성(social desirability) 편향(최근 리뷰논문으로는 Kreuter, Presser, & Tourangeau, 2008)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사회적 권력층에 속한 일부 남성들의 성폭력 가해 사실이 밝혀지면서, 남성은 기존의 젠더문화나 규범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남성응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보다는 소위 '정치적으로 올바른(politically correct)' 응답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페미니즘 관련 연구에서는 설문응답자의 자기보고 데이터와 아울러 사회요망성 편향이 쉽게 발생하지 않는 대안적 측정방법들(이를테면 암묵적 연상 테스트(IAT, implicit association test)나 생리적 반사(physiological responses) 등)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기존 데이터를 2차분석하였다는 점과 횡단적 설문조사 자료가 여러 방법론적 한계를 지닌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미투운동 관련 보도를 접한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미투운동 참여의사를 형성하며, 집단정체성 이론의 관점에서 성별에 따른 미디어의 동원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여성은 물론 남성 역시도 우리사회의 젠더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미투운동에 대해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투운동의 현실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국내 페미니즘 관련 미디어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분석 연구가 진행된다면, 질적으로도 유의미한 페미니즘 관련 미디어 담론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시면 (2018). 미투 (# Me Too) 와 관련하여 강간, 강제추행 및 성희롱 등에 대한 형소법상 증거재판주의 등의 딜레마. <사법행정>, 제59권 5호, 2-17.
- 권민수 (2018, 3, 9). 미투 캠페인을 바라보는 남성들의 말말말. <미디어SR>.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864>
- 김보명 (2018). 전지구적 시각에서 보는 Me Too 운동. <황해문화> 제99권, 198-209.
- 김지혜 (2018, 3, 8). “여성 자체를 괴한다” 미투 대응 ‘웬스 룰’, 또 다른 차별.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081700001&code=940100#csidx29703b70bf4f9809ba6b0597528dfcd
- 김희선 (2018, 3, 12). 도 넘은 ‘미투’ 2차 가해...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변해야”.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2/0200000000AKR20180312128600005.HTML>
- 양정애·김영주 (2018). 성폭력 피해 폭로 ‘미투’ 운동에 대한 국민 인식. <미디어이슈>, 4권2호, 1-17.
- 이나영 (2018).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 <월간 복지동향>, 제 234호, 5-12
- 이영민·이동우 (2018, 3, 12). ‘남혐 vs 여혐’ 性대결 변질된 미투...“갑질로 봐야”.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31215182186207>
- 이미나 (2018, 2, 1). 서지현 검사 ‘폭로’ 본질 못 짚는 언론: ‘용기 있는 폭로 주문’ ‘자극적 삽화 사용’ 여전...“실효성 있는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필요”. <PD Journal>.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1550>
- 이세아 (2018, 4, 8). 페미니즘이 불편한 남성들, 미투 운동에 반기 들다. <여성신문>.
http://m.womennews.co.kr/news_detail.asp?num=141045#.WzqqsdIzaUk
- 이희은 (2018). 페미니즘 운동과 미디어 윤리. <언론정보연구>, 제55권 3호, 120-157.
- 장명선·김선옥 (2016). 성희롱 2차 피해의 법적 쟁점과 과제. <이화젠더법학>, 제8권 3호, 187-224.
- 최이숙 (2018). 백일 넘긴 미투 운동 보도...우리 언론성장했나?. <관훈저널>, 제60권 2호, 51-59.
-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8, 3, 18). ‘미투’ 운동 보도에 대한 성찰과 변화를 촉구한다.
http://www.womencom.or.kr/store/board/view.php?board_id=Notice&no=582
- 현혜란·김예나·이효석 (2018, 3, 25). ‘90년생 김지훈’ 등장...男女대결로 몰아가는 ‘유투운동’.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4/0200000000AKR20180324036800004.HTML>

- JTBC뉴스 (2018, 1, 29). [인터뷰] 서지현 검사 “검찰 내 성폭행도 있었지만 비밀리에 덮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82419
- Ackland, R. (2018, 4, 3). #MeToo has led to an asphyxiating vortex of litigation. *The Guardian*.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8/apr/03/metoo-has-led-to-an-asphyxiating-vortex-of-litigation>
- Aronson, P. (2003). Feminists or “postfeminists”? Young women’s attitudes toward feminism and gender relations. *Gender and Society, 17*(6), 903 - 922.
- Barker-Plummer, B. (2010). News and feminism: A historic dialog. *Journalism & Communication Monographs, 12*(3), 144-203.
- Bollen, K., & Stine, R. (1992). Bootstrapping goodness of fit measur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21*(2), 205 - 229.
- Buschman, J. K., & Lenart, S. (1996). “I am not a feminist, but...”: College women, feminism, and negative experiences. *Political Psychology, 17*(1), 59-75.
- Conover, P. J. (1988). The role of social groups in political thinking.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8*(1), 51-76.
- Davison, W. P. (1983). The third-person effect in communic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47*(1), 1-15.
- Dolata, U. (2018). Social movements: The sociotechnical constitution of collective action. In Dolata, U. & Schrape, J-F. (Eds.). *Collectivity and Power on the Internet: A Sociological Perspective* (pp. 31-56). Cham, Switzerland: Springer.
- Faludi, S. (2006). *Backlash: The undeclared war against American women*. New York: Three Rivers Press.
- Gamson, W. A. (1968). *Power and discontent*. Homewood, IL: Dorsey.
- Gamson, W. A. (1992). *Talking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mson, W., & Wolfsfeld, G. (1993). Movements and media as interacting system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28*, 114-125.
- Gamson, W. A. (1995). Constructing social protest. In Johnson, H. & Klandermans, B. (Eds.). *Social Movements and Culture* (pp. 85 - 106).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Gil de Zúñiga, H., Molyneux, L., & Zheng, P. (2014). Social media, political expression,

- and political participation: Panel analysis of lagged and concurrent relationships. *Journal of Communication*, 64(4), 612-634.
- Guerra, C. (2017, 10, 17). Where'd the #MeToo initiative really come from? Activist Tarana Burke, long before hashtags. *Boston Globe*. Retrieved from <https://web.archive.org/web/20171017232531/https://www.bostonglobe.com/lifestyle/2017/10/17/alyssa-milano-credits-activist-tarana-burke-with-founding-metoo-movement-years-ago/o2Jv29v6ljObkKPTPB9KGP/story.html>
- Gunther, A. C., & Storey, J. D. (2003). The influence of presumed influence. *Journal of Communication*, 53(2), 199-215.
- Gurin, P., Miller, A., & Gurin, G. (1980). Stratum identification and consciousnes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3(1), 30-47.
- Jaworska, S. & Krishnamurthy, R. (2012). On the F-word: A corpus-based analysis of the media representation of feminism in British and German press discourse, 1990 - 2009. *Discourse & Society*, 23(4), 401-431.
- Katz, I., & Hass, R. G. (1988). Racial ambivalence and American value conflict: Correlational and priming studies of dual cognitive struc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893-905.
- Kay, K. (2017, 12, 1). Why women fear a backlash over #MeToo. *BBC*. Retrieved from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42200092>
- Klein, E. (1984). *Gender politics: From consciousness to mass politic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Kinder, D. R., & Sanders, L. M. (1990). Mimicking political debate with survey questions: The case of white opinion on affirmative action for blacks. *Social Cognition*, 8(1), 73-103.
- Kinder, D. R., & Sears, D. O. (1981). Prejudice and politics: Symbolic racism versus racial threats to the good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3), 414-431.
- Kreuter, F., Presser, S., & Tourangeau, R. (2008). Social desirability bias in CATI, IVR,

- and web surveys: The effects of mode and question sensitivity. *Public Opinion Quarterly*, 72(5), 847-865.
- Lind, R. A., & Salo, C. (2002). The framing of feminists and feminism in news and public affairs programs in US electronic media. *Journal of Communication*, 52(1), 211-228.
- Moi, T. (2006). "I am not a Feminist, but...": How Feminism became the F-word. *PMLA*, 121(5), 1735-1741.
- Mumford, G. (2018, 2, 12). Michael Haneke: #MeToo has led to a witch hunt 'coloured by a hatred of men. *The Guardian*.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film/2018/feb/12/michael-haneke-metoo-witch-hunt-coloured-hatred-men>
- Petrow, G. A., Transue, J. E., & Vercellotti, T. (2018). Do white in-group processes matter, too? White racial identity and support for black political candidates. *Political Behavior*, 40(1), 197-222.
- Roscigno, V. J., & Danaher, W. F. (2001). Media and mobilization: The case of radio and southern textile worker insurgency, 1929 to 1934.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1), 21-48.
- Rudman, L. A., & Glick, P. (2012). *The social psychology of gender: How power and intimacy shape gender relations*. New York, NY: Guilford Press.
- Rudman, L. A., Moss-Racusin, C. A., Glick, P., & Phelan, J. E. (2012). Reactions to vanguards: Advances in backlash theor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 167-227.
- Schmidt, V. A. (2008).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e explanatory power of ideas and discours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1, 303-326
- Sniderman, P. M., & Piazza, T. L. (1995). *The scar of ra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now, D. A., Rochford Jr, E. B., Worden, S. K., & Benford, R. D. (1986). Frame alignment processes, micromobilization, and movemen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4), 464-481.
- Snow, D. A., & Benford, R. D. (1992). Master frames and cycles of protest. In A. D. Morris & C. M. Mueller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pp. 133-155).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Snow, D. A., Benford, R. D., McCammon, H., Hewitt, L., & Fitzgerald, S. (2014). The emergence, development, and future of the framing perspective: 25+ years since "Frame Alignment". *Mobilization: An International Quarterly*, 19(1), 23-46.
- Stephens, B. (2017, 12, 20). When #MeToo goes too far.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17/12/20/opinion/metoo-damon-too-far.html>
- Summers-Effler, E. (2002). The micro potential for social change: Emotion, consciousness, and social movement formation. *Sociological Theory*, 20(1), 41-60.
- Thau, M. (2017). How political parties use group-based appeals: Evidence from Britain 1964 - 2015. *Political Studies*, 49(2), 158-178.
- Twohey, M. (2017, 10, 8). Harvey Weinstein Is Fired After Sexual Harassment Reports.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17/10/08/business/harvey-weinstein-fired.html>
- Walden, C. (2018, 3, 7). 'It could all disappear': #MeToo founder Tarana Burke on where the campaign is going wrong. *The Telegraph*. Retrieved from <https://www.telegraph.co.uk/women/life/could-disappear-metoo-founder-tarana-burke-campaign-going-wrong/>
- Webster, J. G. (2014). *The Marketplace of attention: How audiences take shape in a digital age*. Cambridge, MA: MIT Press.
- Xenos, M., & Moy, P. (2007). Direct and differential effects of the Internet on political and civic engage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57(1), 704-718.
- Xiao, Y. J., Coppin, G., & Van Bavel, J. J. (2016). Perceiving the world through group-colored glasses: A Perceptual Model of Intergroup Relations. *Psychological Inquiry*, 27(2-3), 255-274.
- Zeilinger, J. (2018, 1, 29) The #MeToo movement is affecting men too. MTV. Retrieved from <http://www.mtv.com/news/3059457/mtv-survey-men-metoo/>
- Zucker, A. N. (2004). Disavowing social identities: What it means when women say, "I'm not a feminist, but...".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8(4), 423-435.

최초 투고일 2018년 8월 7일
 게재 확정일 2018년 11월 30일
 논문 수정일 2018년 12월 3일

Abstract

Who supports #MeToo movement, and how are they mobilized? Focusing on the different media mobilization mechanism between women and men

Eun Hae Choo

BA student, Department of Communication, Yonsei University

Young Min Baek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based on previous works on people's participation to and attitude towards social movement, examines how the mass media influence people's attitudes toward the #MeToo movement. We examine the pattern of media mobilization, and how it differs between women and men. Specifically, we focus on the role of mediating variables, such as 'recognition of the seriousness of gender culture,' 'expectations of #MeToo movement on solving gender inequality,' and 'concern towards the backlash of #MeToo movement,' lin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exposure and social movement participation; additionally, how the mediating mechanism varies, depending on the gender of respondents. Exploiting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second analysis of public data provided by Korea Press Foundation Media Research Center ($N=1063$) was conducted to test the mobilization effect of media and how the effect is moderated by gender. Our findings, interestingly, show female mobilization effect occurs without mediation (i.e., direct effect) but male mobilization effect is observed via mediating routes (i.e., indirect effect). However, the total effect size of mobilization is similar between women and me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our findings are also discussed.

Keywords: #MeToo movement, group identity, social movement participation, backlash, multi-group SEM